

37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뇌종양

성별	여성	나이	29세	직종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요

근로자 ○○○은 2004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반도체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다 무릎 통증으로 수술 후 2010년 퇴사하였다. 퇴사 후 다른 회사에서 9개월간 경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퇴사 후 2014년 어지러움, 심한 구토 증세, 실시 등으로 2014년 12월에 대학병원에서 뇌종양을 진단 받았다.

2 작업환경

○○○은 2004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5년 6개월 동안 반도체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다. 해당 공정은 금선연결, 몰딩, 도금 공정을 거친 반도체 칩 표면에 상표 및 제품 번호 등을 새겨 넣은 후 조립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포장하는 공정이었다. 근무 공정에서 화학물질은 취급하지 아니하였고, 조립 공정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산, 중금속 일부가 검출되었으나 노출 기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암

4 유해인자

- 물리적 요인(유해광선)

5 의학적 소견

○○○은 2014년 11월부터 어지러움증과 구토 증상이 있었으며, 2014년 11월 경부터 어지러움증과 구토증상이 있었으며, 이를 주소로 천안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MRI 상 ventricular mass 있어 서울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2015년 수술(Craniotomy and tumor removal)하여 상의하세포종을 확진 받았으며, 현재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

과거력상 특이 병력과 약물 복용이력이 없으며, 과거 종양으로 치료 받은 경력 또한 없었다. 또한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 상에서도 특이한 병력은 없었다. 음주 및 흡연력은 없으며, 가족 중 특이 질환이 있거나 암 또는 특이 질환으로 진단된 이력 또한 없었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2004년 11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반도체 조립라인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교대근무 하였고 2010년 5월 31일 퇴사하였다(5년 6개월 근무). 이 과정에서 방사선, 극저주파 전자기장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조사결과 전리 방사선 노출은 자연 방사선 노출 수준이었으며, 극저주파 노출수준은 미국 ACGIH 노출기준(Ceiling value : 1,000 μ T)의 2% 미만 수준이지만, 사무실 작업자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자기장 노출과 뇌종양 발생과의 생물학적 타당성의 연구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으며, 이 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의 결과는 일관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의 뇌종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끝.